3

영생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전부 죽음의 길

생명의 말씀과 논단

한국땅에 오시는 구세주

위에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는 몇 년 입기를 좋아하는 고로 그런 거죠? 또 우 만에 왔어요? 4천년 만에 왔죠? 성경에 리한국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베옷 입 는 진짜 구세주보다 먼저 온 자를 "강도 고 곡을 해요, 까만 옷을 입고 곡을 해요? 요, 도둑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옷 입고 곡을 하죠? 베옷 입고 곡을 할 구세주는 아무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 때에 '아이고, 아이고' 하죠? 마찬가지로 고 우리 한국 땅에 나온다는 것이 이사야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베옷을 입고 '아 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섬들아 잠잠 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는 것이 우리 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 와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 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게 안 하고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 라"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나라를 동방나라 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베옷을 리고 했는데 '섬들아 잠잠하라'고 했으니 입고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까 일본 나라는 섬나라인 고로 너희들은 민족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잠자코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너희 나 것입니다. 라에서는 구세주가 안 나오니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는데 열국 왕들이 그 의인 앞에 와서 굴 어 있는 것은 현재 미국에 돈 있는 사람 복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동방의 의인이 만왕의 왕이 되는 구세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아니고서야 세상 왕 다 유태인들인이죠? 우리나라 백성이 이 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잘 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큰절을 하 겠어요? 구세주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지전능자인 고로 세상 왕들이 입니다. 다 와서 벌벌 떨면서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 러일으키리라"라고 했는데 땅끝 땅 모 퉁이 나라가 한국이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쏙 삐져나온 모퉁이 땅인 것입 니다. '모퉁이 땅에서 너를 불러일으킨다' 고 했으니까 모퉁이 땅에서 의인을 불러 일으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만국 왕들 이 다 와서 굴복하여 절을 해야 할 의인 이 한국 땅에서 나온다는 소리인 것입니 에 이스라엘 말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다.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의 같은 풍습

이 단군 할아버지 자손인데, 단군 할아버

람들을 백의민족이라고 동양사에도 쓰 성경에는 6천년 만에 구세주가 이 땅 여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흰옷 고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고, 중 국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직 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드 러나면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 게 되어 우리나라가 금세 부자가 되게 되 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인 고로 그런 것입니다. 이 지구 땅위에 최고 부자들이 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만 밝혀지면 우 리나라는 금세 부자가 되게 되어 있지만 이걸 모르고 있으니 참말로 안타까운 것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에 쓰여진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이 없다는 것은 박물관에 가보면 대 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왓장이 나오는데 대동강변이면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신 고조선이 있던 위치죠? 그런데 그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동그란 기왓장 동양사에는 우리 민족을 알타이 어족이 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단지파가 이 스라엘 소라 땅에 있다가 동쪽으로, 동쪽 이 사람이 한국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 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서 우랄알타이 산 맥까지 올라가서 살게 되었고 알타이 민 지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인 단이라고 족들과 물물교환을 하려니까 알타이 말 하면서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군이라 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타이 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 말을 배워가지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알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죠? 우리 한국 사 타이 말을 사용하게 되니 이스라엘 말이



구세주 조희성님

되는 히브리어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몽고를 거치고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 너 대동강변에 자리를 잡고 고조선이라 는 나라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 리나라 민족을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를 썼던 고로 기 왓장이나 단군 할아버지 지석에 히브리 어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민족은 틀림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성 경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복지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처럼 크고 우리 이스 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하고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키가 작은 좀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키가 작은 것을 보아서도 틀림없는 이스라엘 민족 이죠?

유월절과 동짓날

또한 동짓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팥죽 을 쑤어서 문설주에 바르는 습관이 있었 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월절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애급 나라에서 모세가 이스라 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 하고 오겠다고 애급 나라 왕에게 부탁했 지만 들어주지 않는 고로 모세가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여러분들은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것 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 의 피를 바르고 하루 저녁을 자고 일어나 니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급 나라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 다. 그렇게 되니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 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저 광야에 나 가서 기도하고 오시오."하고 허락을 한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때에 홍해가 가로 놓여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 뒤를 돌 아보니 애급 나라 군인들이 말을 타고 추 적을 하고 쫒아오고 있는 고로 모세가 지 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니 홍해가 육지 같이 쫙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벽을 이뤄 흐르지 않고 육지 같이 갈라지 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 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급나 라 군인들은 말을 타고 바다 중간쯤 쫓아

것입니다.

왔을 때에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물속에 다 수장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성 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에서 자그마치 40년간을 살 때에 먹을 것 이 없는 고로 모세에게 '애급 나라에 있 을 때에 잘 먹고 잘 지내는 우리들을 왜 여기까지 불러다가 굶겨 죽이느냐'고 원 망을 하게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했고, 하늘에서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육의 양식인 이슬과 같은 만나 가 내리는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태 기로 퍼다가 먹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죠? 자그마치 40년간 그걸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슬을 내려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기 를,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 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지, 그 선지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 라.'고 했는데, 멸망 받는다는 것은 죽는 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리는 사람이라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진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 땅에 서 구원해낸 구세주이지만 장차 나타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진짜 구세주인 고 로 영적인 이슬성신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슬성신을 부어주는 자가 구세주라는 것이 호세아 14장 5절 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요, 이 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자라는 뜻인 고 로 나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 이 마귀인 고로 마귀를 이겨서,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된 자가 이 긴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 슬과 같으리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 님이 이긴자에게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신인 데 이슬을 내리는 이긴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고 했는데, 백합화가 무엇이라는 것 이 찬송가 가사에 있죠?

♬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주님일세)

구세주가 백합화라는 의미죠? 또한 명 랑한 새벽별이라고 했으니 밝은 새벽별 이 구세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벽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구세주

묵시록 2장 26절로부터 28절에 "이기 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쓰여 있는데 새벽별은 밝은 별인 고로 밝은 별 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의 이름은 밝은 별이지, 예수라는 이름이 구세주의 이름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세주는 한국 땅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 고 쓰여 있는데, 불경에도 생미륵불의 성 은 창녕 조(曹)씨요, 이름은 밝은 명자, 별 성자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 미륵불은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불경에도 쓰여 있고, 성경 에도 쓰여 있고, 격암유록에도 쓰여 있는

그러나 주인공을 만나보고도 진짜인 지 가짜인지 모르고 죽는 길로 가는 사람 들이 있는데, 영생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은 전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 려면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이는 되어 질 수가 없는 고로 그 능력을 이 사람이 보 여줬던 거죠? 설교하다가 이 사람이 불 덩어리로 변하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무 서워서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고로 불덩 어리로 변신하는 것을 멈췄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청량리에서 역 곡까지 5분도 안 돼서 왔다면 날아 왔다 는 거죠? 5분 만에 와가지고 청량리제단 에 이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나, 여기 역 곡이야! 하니까 '아니, 5분 전에 계셨는데 벌써 역곡에 가셨어요?' 하고 놀라는 고 로 '그래, 못 믿겠어?' 하고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주니까 전화기를 건네받은 사람이 '여기 역곡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기 역곡에 계십니다.'하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4면 상단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가나안 정착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는 주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의 주기성 을 가지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쓰고 있 다. 즉,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가나 안 땅 정착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의 신,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러자 아훼께서 주변의 이방의 왕을 일으켜 이 스라엘을 침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다가, 이러한 위기 때마다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즉 사사를 보내어 적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패턴으로, 통일 왕 국을 이루기까지의 역시를 서술하고 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정착 생 활을 시작하면서 왕정이 시작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비교적 느슨하게 조직된 지 파 동맹 체제로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 다. 이스라엘의 점령지는 균형이 잘 잡 힌 하나의 영토를 이루고 있지 못하였 다. 초기 이스라엘 지파가 여기저기 땅

을 나누어 정착하여 거주한 지역은 주로 산악 지대로서, 대부분 평야 지대에 살 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철병 거가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사 사기 1:19, 여호수아기 17:16). 이스라엘 의 이러한 생활 모습을 아람 왕 벤하닷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저 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 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우리가 이길 것입니 다."(열왕기상 20:23).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중앙 정부 나 단일한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 았으며, 상비군조차 가지지 못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강한 이웃 나 라들과는 구별되는 강인한 신앙과 전통 을 가지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 다. 이러한 과정에서 '야훼의 영'(사사기 6:34~35, 14:6)에 의해 능력을 입은 카리 스마적인 사사 또는 판관(判官)의 역할 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래 사사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 로 사람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사 사기 21:25) 살던 시대에 자기가 속한 이

≪9장 사사시대≫ 1절: 이스라엘 사사들의 역할

스라엘의 지파가 위기에 처한 경우 강 력한 카리스마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지 파의 결속력을 묶어 주는 구심점 역할 을 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지 파 동맹을 통하여 적들과 싸웠으며, 중 앙 성소에서의 공동의 종교 제의를 통 하여 그들의 이상을 실천해 나갔다. 이 들은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로부터의 정 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 및 종교적 지 배로부터 자신들의 평등 이념을 기초로 한 해방 공동체를 지켜 나가려는 종교 적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투쟁해 나 갔던 것이다(cf. 사사기 1:1~2:5). 그런 점에서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

는 '야훼의 용사'들이었다. 물론 사사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았 고, 영속적이지도 않았으며, 어떤 경우 에도 세습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은 단순히 사회 · 경제적 요소에 충실한 지도자였으며, 종교적 신앙의 수호자였 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를 새로 운 형태로 만들어 갈 사회 혁신자였다 (cf. 이사야서 33:22). 히브리 성서가 많 은 전설과 민담과 함께 전하고 있는 사 사들로는 유다 지파의 옷니엘, 베냐민 지파의 에훗,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에 브라임 지파의 데보라, 길르앗 지파의 입다, 단 지파의 삼손, 비이스라엘계 사 사인 삼갈 등 총 12명이 있었다(이들이 통치한 기간은 합계 410년이 된다). 그들 은 '구원자 - 심판자'라는 이중적인 기능 을 담당하였다.

전(全) 사사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한 지파 또는 한 명의 사사가 통일된 하나 의 국가를 창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위 협이 되었던 가나안의 도시 국가의 체 제를 모방하려는 움직임도 전혀 없었다. 사사 기드온이 왕위를 거절한 이야기(사 사기 8:22~28)와 요담의 풍자적 우화 (사사기 9:7~21)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정 제도는 그 개 념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었다. 이는 이 스라엘이 오직 아훼만이 자신들의 지도 자임을 믿는 평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신정(神政) 정치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사 시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역시 블레셋이었다. 이스라 엘은 적어도 그들과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쟁해야만 하였다. 블레셋은 기원 전 13세기경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한 이 후, 그리스 에게 문명의 원류에 뿌리를 두고 발생한 해양 민족(sea people)으로 서, 당시 새로운 지중해의 질서를 세워 나갔다. 성서에 따르면, 이 해양 민족인 블레셋은 갑돌(아모스서 9:7, 예레미야 서 47:4)에서부터 왔다. 갑돌은 오늘날의 크레타 섬을 지칭한다. 블레셋은 기원 전 1220년경 이집트의 메르넵타 왕 제5 년에 델타 평원에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해안 평야에 상륙하였다. (참 조: 바다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블레셋인 들이 크레타섬을 떠나 가나안을 정착하 게 된 동기에 대한 유력한 가설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는 과 정에서 기원전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브라함 과 이삭 시기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등장한다.)

이들은 지리적, 인종적, 어원적으로 볼 때, 인도 · 유럽계로 인정된다. 고고학적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들의 기 원과 정체가 차츰 밝혀지고 있는데, 특 히 이들이 사용한 도자기는 키프로스, 로도스, 그리고 아니톨리아 남부 지역에

서 발견되는 미케네 도자기 제품으로, 모두 검붉은 색깔을 띠는 것이 특징이 다.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들 - 므깃도, 텔 카실, 텔 젬메, 텔 엘파라, 텔 아이툰, 벤산, 아스글론 등 - 에서도 똑같은 형태 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들의 다섯 방백 (傍白)으로서 가사(Gaza가자), 아스돗, 아 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언급하고 있으며 (여호수아기 13:3), 이 도시들은 성서에 자주 등장한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은 지중해 남부 해안 지대로서, 한 수장(守長)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일 국가 체제를 유지한 것 같지는 않다. 그 들은 각각의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중 앙 성소를 중심으로 연맹을 이루며 살았 으며, 다곤 신, 또는 바알 세붑(열왕기하 1:2)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 블레셋 은 적어도 기원전 10세기 다윗 왕 때까 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의 중 앙 성소인 실로에 두었던 법궤가 블레셋 에게 빼앗기는 수난을 겪었으며(사무엘 기상 4~7장),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였 다(사무엘기상 31장).*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스라엘 사사들의 역할 – 이스라엘사